



## 목 차

|              |                                |    |
|--------------|--------------------------------|----|
| 1. 한자 (1)    | 한자와의 만남                        | 2  |
| 2. 한자 (2)    |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 한자              | 4  |
| 3. 어휘 (1)    | 한자성어(1)                        | 6  |
| 4. 어휘 (2)    | 한자성어(2)                        | 8  |
| 5. 어휘 (3)    | 한자성어(3)                        | 10 |
| 6. 단문 (1)    | 고전 속의 명단문(1)                   | 12 |
| 7. 단문 (2)    | 고전 속의 명단문(2)                   | 14 |
| 8. 단문 (3)    | 고전 속의 명단문(3)                   | 16 |
| 9. 단문 (4)    | 고전 속의 명단문(4)                   | 18 |
| 10. 우언과 일화   | 불언장단(不言長短), 차계기환(借鷄騎還)         | 20 |
| 11. 예술과 인물   | 최북(崔北), 이징(李澄), 최흥효(崔興孝)       | 22 |
| 12. 歷史 속 인물  | 온달(溫達), 만덕(萬德)                 | 24 |
| 13. 민족과 전통   | 단군(檀君), 훈민정음(訓民正音)             | 26 |
| 14. 歷史와 소설   | 이순신(李舜臣), 허생전(許生傳)             | 28 |
| 15. 풍속과 지리   | 원일(元日), 추석(秋夕), 독도(獨島)         | 30 |
| 16. 한시 (1)   |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 춘흥(春興), 춘효(春曉)   | 32 |
| 17. 한시 (2)   | 방김거사야거(訪金居士野居), 자술(自述), 송인(送人) | 35 |
| 18. 명문       | 잡설(雜說)                         | 38 |
| 19. 제자백가 (1) | 논어(論語), 맹자(孟子)                 | 40 |
| 20. 제자백가 (2) | 노자(老子), 장자(莊子), 묵자(墨子), 순자(荀子) | 44 |
| 부 록          | 간략하게 설명한 한자성어(漢字成語)            | 47 |



## 제 1 강 한자와의 만남

## 1. 한자의 발생

한자는 오랜 세월 동안 발생, 변화, 발전을 해왔으며, 지금도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문자의 하나로, 발생한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 2. 한자의 자체 변천

갑골문(甲骨文) - 금문(金文) - 전서(篆書) - 예서(隸書) - 해서(楷書)

- ◆ 갑골문(甲骨文) : 거북의 배딱지와 동물의 뼈에 새겨 놓은 글자.  
은(殷)나라 때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점을 치고 기록해 놓은 것.  
일반적으로 B.C.14C~11C의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
- ◆ 금문(金文) : 청동, 종, 술에 새겨놓은 글자.  
B.C.15C부터 1,200년간 사용되었다. 갑골문에 비해 글자의 형태가 갖춰짐.
- ◆ 전서(篆書) : 전국시대 죽간이나 비단 등에 글자를 쓰면서 다양한 글자체가 사용되었다.  
이 중 진(秦)의 글자를 '대전(大篆)'이라하고 통일 이후 이사(李斯)가 대전을 더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소전(小篆)'이다.
- ◆ 예서(隸書) : 전서를 간략화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글자.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 ◆ 해서(楷書) : 한(漢) 말기에 출현하여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  
'진서(眞書)' 또는 '정서(正書)'라고 한다.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해서

예> '馬 (말 마)'의 한자의 자체변천



※ 초서와 행서 : 초서는 속도를 내서 매우 흘려 쓴 형태의 글씨이고,  
행서는 초서와 해서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 3. 한자의 3요소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形) 소리(音) 뜻(義)로 구성된 표의문자이다.

## 4. 한자의 짜임

**상형(象形)** 물건의 모양을 본뜬 한자.

예) 山, 火, 木, 水, 月, 日, 魚, 禾 등

**지사(指事)**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한자.

예) 一, 二, 三, 上, 中, 下, 本, 末 등

**회의(會意)** 뜻과 뜻이 만나 새로운 뜻이 된 한자.

예) 明, 休, 好, 林, 仙, 析 등

**형성(形聲)** 뜻과 소리가 만나 이루어진 한자.

예) 村, 淸, 花, 間, 住, 珠, 姑 등

## 5. 부수

부수란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로 한자의 형태를 중심으로 정리, 분류, 배열할 때 뜻을 나타내는 부분의 공통된 한자를 말한다.

부수가 같은 한자는 서로 연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청(淸)나라 때 간행된 『강희자전(康熙字典)』의 214부수를 이용하고 있다.

心(마음 심)이 부수인 경우

恩(은혜 은), 惡(악할 악), 忘(잊을 망)

木(나무 목)이 부수인 경우

林(수풀 림), 東(동녘 동), 柱(기둥 주)

변형된 부수

| 본래형태 | 변형된 형태 | 예    | 본래형태 | 변형된 형태 | 예    |
|------|--------|------|------|--------|------|
| 人    | 亻      | 仕, 住 | 刀    | 刂      | 利, 刑 |
| 手    | 扌      | 技, 投 | 火    | 灬      | 然, 熱 |
| 心    | 忄, 小   | 性, 添 | 水    | 氵, 氷   | 江, 泰 |
| 犬    | 犴      | 獨, 狗 | 玉    | 王      | 珍, 現 |
| 衣    | 衤      | 被, 補 | 艸    | 艹      | 花, 草 |
| 阜    | 阝      | 技, 投 | 邑    | 阝      | 部, 郡 |

## 6. 한자 찾기

- ① 부수로 찾기    ② 음으로 찾기    ③ 총획으로 찾기    ④ 컴퓨터로 찾기

예) 俗,

- ① - 부수색인 2획에서 '亻'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 - 나머지 7획(俗)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찾는다.
- ② - 음을 알고 있을 경우, '속'이라는 음을 ㉠~㉢중, ㉡에서 찾는다.
- ③ - 총획 9획에서 '俗'을 찾는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 ④ - ㉠ 컴퓨터로 찾기에서는 Ctrl+F9를 눌러 '부수로 찾기'식으로 찾으면 된다.
  - ㉡ 해당하는 한글 '속'의 커서를 속 뒤에 놓고 'F9' 또는 '한자' 키를 눌러 해당 한자를 검색하면 된다.
  - ㉢ 필기인식기(포털사이트)에 해당 한자를 직접 써서 검색한다.



## 제 2 강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

|   |   |                |                                                                               |
|---|---|----------------|-------------------------------------------------------------------------------|
| 樂 | 락 | 즐겁다            | 君子有三樂而王天下 不與存焉(군자유삼락이왕천하 불여존인)<br>군자에게는 세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에는 더불어 있지 않다. |
|   | 악 | 음악             |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흥어지 입어예 성어악)<br>시에서 일어나고 예에서 서고 음악에서 완성된다.                        |
|   | 요 | 좋아하다           | 仁者樂山 知者樂水(인자요산 지자요수)<br>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
| 惡 | 악 | 악하다            | 一日行惡 福雖未至 禍自遠矣(일일행악 복수미지 화자원의)<br>하루 악을 행하더라도 복은 비록 이르지 않으나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
|   | 오 | 미워하다           | 惟仁人 能好人 能惡人(유인인 능호인 능오인)<br>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
|   | 오 | 어찌             | 君子去仁 惡乎成名(군자거인 오호성명)<br>군자가 인을 떠나서 어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
| 更 | 갱 | 다시             | 言出難更收(언출난갱수)<br>말은 하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                                             |
|   | 경 | 고치다            | 更也 人皆仰之(경야 인개앙지)<br>'고친다'란 것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보게 된다.                            |
|   | 경 | 시각             |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br>창 밖에는 삼경저녁11시~새벽1시에 비가 내린다.                                   |
| 見 | 견 | 보다             | 見小利則大事不成(견소리즉대사불성)<br>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
|   | 견 | 당하다            | 匹夫見辱 拔劍而起(필부견욕 발검이기)<br>평범한 사람이 욕됨을 당하면 칼을 뽑고 일어난다.                           |
|   | 현 | 드러나다           | 莫見乎隱 莫顯乎微(막현호은 막현호미)<br>감추는 것 보다 더 잘드러내는 수 없고 숨은 것 보다 더 잘 드러나는 수 없다.          |
| 與 | 여 | 더불어<br>(~와 함께) | 雖畜物 其心 與人同也(수축물 기심 여인동야)<br>비록 가축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과 더불어 같다.                        |
|   | 여 | ~와/과           | 富與貴 是人之所欲也(부여귀 시인지소욕야)<br>부와 귀 이(것)는 사람이 하고자하는 바(바)라는 바이다.                    |
|   | 여 | 주다             |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시은물구보 여인물추회)<br>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를 쫓지 말라.          |
| 說 | 설 | 말, 말하다         | 無道人之短 無說己之長(무도인지단 무설기장)<br>남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이야기하지 말라.                  |
|   | 열 | 기쁘다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br>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   | 세 | 달래다            | 遊說(유세) : 선거 유세                                                                |
| 過 | 과 | 허물             | 口不言人之過(구불언인지과)<br>입으로는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
|   | 과 | 지나가다           | 光陰者 百代之過客(광음자 백대지과객)<br>세월이란 것은 오랜 시간(영원히)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
|   | 과 | 지나치다           | 過猶不及(과유불급)<br>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
| 寧 | 녕 | 편안하다           | 安寧(안녕), 壽福康寧(수복강녕)<br>편안함 / 오래 살아 복을 누리며 건강하여 마음이 편안함                         |
|   | 녕 | 어찌             | 寧無不平之心乎(녕무불평지심호)<br>세월이란 것은 오랜 시간(영원히)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
|   | 녕 | 차라리            | 寧爲雞口 無爲牛後(녕위계후 무위우후)<br>차라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                         |

|   |   |              |                                                                                                |
|---|---|--------------|------------------------------------------------------------------------------------------------|
| 道 | 도 | 길            | 道路(도로), 人道(인도)                                                                                 |
|   | 도 | 도, 도리        | 人不學 不知道(인불학 부지도)<br>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                                                     |
|   | 도 | 말하다          | 有道卞氏者(유도변씨자) / 無道人之短(무도인지단)<br>변씨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
| 自 | 자 | 스스로<br>저절로   | 彼曲我直 而反自逃 非丈夫也(피곡아직 이반자도 비장부야)<br>저들은 그르고 나는 옳은데 도리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장부가 아니다.                      |
|   | 자 | 자신, 자기       | 勝人者 有力 自勝者 強(승인자 유력 자승자 강)<br>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
|   | 자 | ~로부터         | 自七月望(자칠월망) / 看晨月 坐自夕(간신월 좌자석)<br>칠월 보름부터 / 새벽달을 보고자 저녁부터 앉아 있다.                                |
| 安 | 안 | 편안하다         | 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br>편안하게 살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하니 생각하면 대비함이 있고, 대비함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         |
|   | 안 | 어찌/어디        | 燕雀 安知鴻鵠之志哉(연작 안지홍곡지지재) / 子將安之(자장안지)<br>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큰뜻을 알겠는가? / 너는 장자 어디로 가려하느냐?        |
| 易 | 이 | 쉽다           | 破山中賊易 破心中賊難(파산중적이 파심중적난)<br>산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
|   | 역 | 바꾸다          | 易地思之(역지사지)<br>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                                                                   |
| 若 | 약 | 만약           | 若使夢魂行有跡(약사몽혼행유적)<br>만약 꿈속의 나로 하여금 자취가 있게 한다면                                                   |
|   | 약 | 같다           | 上善若水(상선약수)<br>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
| 率 | 솔 | 거느리다         | 騎馬欲率奴(기마욕솔노)<br>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다.                                                              |
|   | 률 | 비율           | 比率(비율), 確率(확률)                                                                                 |
| 善 | 선 | 착하다          | 積善之家 必有餘慶(적선지가 필유여경)<br>선행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
|   | 선 | 잘하다          | 金先生 善談笑(김선생 선담소)<br>김선생은 우스운 이야기를 잘했다.                                                         |
| 降 | 강 | 내리다          | 降於太白山頂神檀樹下(강어태백산정신단수하)<br>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다.                                                 |
|   | 항 | 항복하다         | 降伏(항복), 投降(투항)                                                                                 |
| 復 | 복 | 회복하다<br>돌아오다 | 克己復禮(극기복례)<br>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예를 회복시킨다)                                                   |
|   | 부 | 다시           | 遂不復言人長短云(수불부언인장단운)<br>마침내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
| 足 | 족 | 발            | 鳥足之血(조족지혈)<br>새 발의 피                                                                           |
|   | 족 | 만족하다         | 子貢 問政 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자공 문정 자왈 족식족병 민신지의)<br>자공이 정치를 물으니 공자가 말하길 식량을 풍족히 하고 무기를 풍족히 하면 백성이 믿게 된다. |



## 제 3 강 어휘 - 한자성어(1)

刻骨難忘 刻舟求劍 開卷有益 結者解之 鷄卵有骨 鷄鳴狗盜  
 鼓腹擊壤 苦盡甘來 管鮑之交 矯角殺牛 教學相長 口蜜腹劍  
 九死一生 九牛一毛 群鷄一鶴 近墨者黑 錦上添花 錦衣還鄉  
 金枝玉葉 難兄難弟 多多益善 斷金之交 大器晚成 同床異夢

## 풀이와 해석

刻骨難忘 (새길 각, 뼈 골, 어려울 난, 잊을 망)

뼈에 새겨져 잊기 어려움 ⇒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못함.

刻舟求劍 (새길 각, 배 주, 구할 구, 칼 검)

배에 새겨 칼을 구하다 ⇒ 융통성 없이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開卷有益 (열 개, 책 권, 있을 유, 더할 익)

책을 읽으면 유익하다는 뜻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말.

結者解之 (맺을 결, 사람 자, 풀 해, 어조사 지)

(일을)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함.

鷄卵有骨 (닭 계, 알란, 있을 유, 뼈 골) ※ 꺾은 뼈의 뜻이 아니라, <골='끓었다'의 소리를 음차(音借)한 것임.

계란이 끓었다 ⇒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일이 잘 안됨.

鷄鳴狗盜 (닭 계, 울 명, 개 구, 훔칠 도)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훔내를 잘 내는 좀 도둑.

⇒ 천(賤)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쓸모가 있음.

鼓腹擊壤 (두드릴 고, 배 복, 칠 격, 땅 양)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고, 땅바닥을 치면서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 태평성대

苦盡甘來 (쓸 고, 다할 진, 달 감, 올 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 ⇒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管鮑之交 (대롱 관, 절인고기 포, 어조사 지, 사귄 교)

관중과 포숙의 사귄 ⇒ 친한 친구 사이

矯角殺牛 (바로잡을 교, 뿔 각, 죽일 살, 소 우)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일을 망친다.

教學相長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 상, 긴 장)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口蜜腹劍 (입 구, 꿀 밀, 배 복, 칼 검)

입에는 꿀이 있으나 배 속에는 칼이 있음 ⇒ 겉과 속이 다름

九死一生 (아홉 구, 죽을 사, 한 일, 살 생)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남

九牛一毛 (아홉 구, 소 우, 한 일, 털 모)

아홉 마리 소 중에 하나의 털 ⇒ 매우 많은 것 중에 극히 적은 수.

群鷄一鶴 (여러 군, 닭 계, 한 일, 두루미 학)

무리의 닭 가운데 한 마리의 학 ⇒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한사람

近墨者黑 (가까울 근, 먹 묵, 사람 자, 검을 흑)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 ⇒ 나쁜 친구를 사귀면 물들기 마련이다.

錦上添花 (비단 금, 윗 상, 더할 첨, 꽃 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하여진다.

錦衣還鄉 (비단 금, 옷 의, 돌아올 환, 고향 향)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옴 ⇒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간다.

金枝玉葉 (쇠 금, 가지 지, 구슬 옥, 잎 엽)

금 나뭇가지에, 옥 잎사귀 ⇒ 귀한 자식을 이름

難兄難弟 (어려울 난, 만 형, 어려울 난, 아우 제)

형이 낫다고 하기에다 어렵고 아우가 낫다고 하기에다 어려움 ⇒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

多多益善 (많을 다, 많을 다, 더할 익, 좋을 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斷金之交 (끊을 단, 쇠 금, 어조사 지, 사귄 교)

쇠를 자를 정도의 사귄.

大器晚成 (큰 대, 그릇 기, 늦을 만, 이를 성)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짐 ⇒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同床異夢 (같은 동, 상 상, 다를 이, 꿈 몽)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다. ⇒ 겉으로는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함.



## 제 4 강 어휘 - 한자성어(2)

登高自卑 燈下不明 馬耳東風 莫逆之友 望雲之情 麥秀之嘆  
 明若觀火 目不識丁 無爲徒食 聞一知十 尾生之信 拔本塞源  
 發憤忘食 背水之陣 伯牙絕絃 父慈子孝 不恥下問 朋友有信  
 殺身成仁 三人成虎 相扶相助 桑田碧海 塞翁之馬 先公後私

## 풀이와 해석

登高自卑 (오를 등, 높을 고, ~로부터 자, 낮을 비)

높은 곳을 오르는 것은 낮은 곳으로부터 한다. ⇒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음.

燈下不明 (등잔 등, 아래 하, 아니 불, 밝을 명)

등잔 밑이 밝지 않음 ⇒ 가까이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함.

馬耳東風 (말 마, 귀 이, 동녘 동, 바람 풍)

말 귀에 동쪽(봄)바람 ⇒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함.

莫逆之友 (없을 막, 거스를 역, 어조사 지, 벗 우)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 ⇒ 아무 허물없는 친한 친구.

望雲之情 (바라볼 망, 구름 운, 어조사 지, 뜻 정)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 ⇒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麥秀之歎 (보리 맥, 빼어날 수, 어조사 지, 탄식할 탄)

보리만 무성함을 탄식함. ⇒ 조국의 멸망을 탄식함

明若觀火 (밝을 명, 같을 약, 불 관, 불 화)

밝기가 불을 보는 것과 같다. ⇒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함.

目不識丁 (눈 목, 아니 불, 알 식, 고무래 정)

눈으로 고무래를 보고도 '丁'자를 알지 못함 ⇒ 쉬운 글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無爲徒食 (없을 무, 할 위, 다만 도, 먹을 식)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함.

聞一知十 (들을 문, 한 일, 알 지, 열 십)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앎.

尾生之信 (꼬리 미, 날 생, 어조사 지, 믿을 신)

미생의 믿음 ⇒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킴

拔本塞源 (뽑을 발, 근본 본, 막을 색, 근원 원)

근본을 뽑아내고 근원을 막음.

發憤忘食 (필 발, 분할 분, 잊을 망, 먹을 식)

힘써 노력하여 먹는 것조차 잊음.

背水之陣 (등질 배, 물 수, 어조사 지, 진칠 진)

물을 등지고 치는 진법 ⇒ 죽을 각오로 어떤 일에 임함.

伯牙絕絃 (만 백, 어금니 아, 끊을 절, 줄 현)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음 ⇒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함.

父慈子孝 (아버지 부, 사랑할 자, 아들 자, 효도 효)

부모는 자녀를 향해 자애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不恥下問 (아니 불, 부끄러울 치, 아래 하, 물을 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朋友有信 (벗 봉, 벗 우, 있을 유, 믿을 신)

친구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한다.

殺身成仁 (죽일 살, 몸 신, 이를 성, 어질 인)

자신을 죽여서(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三人成虎 (석 삼, 사람 인, 이를 성, 범 호)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냄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짜처럼 들림.

相扶相助 (서로 상, 도울 부, 서로 상, 도울 조)

서로 돕고 서로 도움.

桑田碧海 (뽕나무 상, 밭 전, 푸를 벽, 바다 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됨 ⇒ 세상의 변화가 심함.

塞翁之馬 (변방 새, 늙은이 옹, 어조사 지, 말 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음.

先公後私 (먼저 선, 여러 공, 뒤 후, 사사로울 사)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뒤에 사적인 일을 한다.



## 제 5 강 어휘 - 한자성어(3)

雪上加霜 首丘初心 手不釋卷 水魚之交 守株待兔 安分知足  
 漁父之利 易地思之 吾鼻三尺 烏飛梨落 溫故知新 欲速不達  
 愚公移山 朝三暮四 走馬看山 指鹿爲馬 青出於藍 表裏不同  
 風前燈火 咸興差使 螢雪之功 狐假虎威 昏定晨省 畫蛇添足

## 풀이와 해석

雪上加霜 (눈 설, 윗 상, 더할 가, 서리 상)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짐 ⇒ 안 좋은 일이 겹쳐 생겨남.

首丘初心 (머리 수, 언덕 구, 처음 초, 마음 심)

고향 언덕 쪽을 바라보고 죽는, 처음을 그리워하는 마음 ⇒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手不釋卷 (손 수, 아니 불, 풀 석, 책 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함 ⇒ 열심히 공부함.

水魚之交 (물 수, 물고기 어, 어조사 지, 사귄 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 ⇒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

守株待兔 (지킬 수, 그루터기 주, 기다릴 대, 토끼 토)

그루터기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림 ⇒ 융통성 없고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

安分知足 (편안할 안, 나눌 분, 알 지, 만족할 족)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다.

漁父之利 (물고기잡을 어, 아버지 부, 어조사 지, 이로울 리)

어부의 이익 ⇒ 두사람이 싸우는 사이에 제 3자가 이득을 봄.

易地思之 (바꿀 역, 땅 지, 생각할 사, 어조사 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

吾鼻三尺 (나 오, 코 비, 석 삼, 자 척)

내 코(콧물)가 석자 ⇒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

烏飛梨落 (까마귀 오, 날 비, 배 리, 떨어질 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없는 일이 공교롭게도 같이 일어나 의심을 받게 됨.

溫故知新 (익힐 온, 옛 고, 알 지, 새 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앎.

欲速不達 (하고자할 욕, 빠를 속, 아니 불(부), 이를 달)

빨리 하고자 하면 (오히려) 이를 수 없음.

愚公移山 (어리석을 우, 공평할 공, 옮길 이, 뫼 산)

우공이 산을 옮김. ⇒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어짐.

朝三暮四 (아침 조, 석 삼, 저물 모, 녀 사)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 ⇒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농락함.

走馬看山 (달릴 주, 말 마, 볼 간, 뫼 산)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바라봄. ⇒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

指鹿爲馬 (가리킬 지, 사슴 록, 할 위, 말 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青出於藍 (푸를 청, 날 출, 어조사 어, 쪽풀 람)

청색은 쪽풀에서 나온다. ⇒ 제자가 스승에게서 배우나 스승보다 뛰어남

表裏不同 (겉 표, 속 리, 아니 불(부), 같을 동)

겉과 속이 같지 않음.

風前燈火 (바람 풍, 앞 전, 등불 등, 불 화)

바람 앞의 등불 ⇒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咸與差使 (모두 함, 흥할 흥, 어긋날 차, 사신 사)

함흥으로 보낸 사신 ⇒ 심부름 가서 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는 사람(경우)

螢雪之功 (개똥벌레 형, 눈 설, 어조사 지, 공 공)

반딧불이, 눈을 모아 비추어 공부를 함 ⇒ 역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공함.

狐假虎威 (여우 호, 빌릴 가, 범 호, 위엄 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昏定晨省 (어두울 혼, 정할 정, 새벽 신, 살필 성)

어두워서는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핀다. ⇒ 극진한 효.

畫蛇添足 (그릴 화, 뱀 사, 더할 첨, 발 족)

뱀을 그리고 발을 보태어 그림 ⇒ 쓸데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여 잘못됨.



## 제 6 강 단문(短文) - 고전 속의 명단문(1)

瓜田不納履하고 李下不整冠이라.

苟日新이어든 日日新하고 又日新하라.

君子는 求諸己하고 小人은 求諸人이라.

君子有三樂而王天下는 不與存焉이니라.

君子之交는 淡如水라.

勤爲無價之寶요 慎是護身之符라.

近墨者黑하고 近朱者赤이라.

騎馬면 欲率奴라.

己所不欲이면 勿施於人이라.

寧爲鷄口언정 無爲牛後라.

### 풀이와 해석

- ◆ 瓜田不納履하고 李下不整(正)冠이라. (瓜: 오이 과, 納: 들일 납, 履: 신 리, 整: 바로잡을 정, 冠: 갓 관)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라.
- ◆ 苟日新이어든 日日新하고 又日新하라. (苟: 진실로 구, 新: 새 신, 又: 또 우)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려거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라.
- ◆ 君子는 求諸己하고 小人은 求諸人이라. (求: 구할 구, 諸: 之於 저) ※ 諸: 之於 = 그것을 ~에  
군자는 (잘못된 원인을) 자기에게서 그것을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한다.
- ◆ 君子有三樂而王天下는 不與存焉이니라. (樂: 즐거움 락, 而: 말이를 이, 與: 더불어 여, 存: 있을 존, 焉: 어조사 언)  
군자에게는 세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더불어(함께) 있지 않다.
- ◆ 君子之交는 淡如水라. (交: 사귄 교, 淡: 맑을 담, 如: 같을 여)  
군자의 사귄은 맑기가 물과 같다.

- ◆ 勤爲無價之寶요 慎是護身之符라. (勤:부지런할 근, 價:값 가, 寶:보배 보, 慎:삼갈 신, 護:지킬 호, 符:부적 부)  
부지런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고, 신중함이란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
- ◆ 近墨者黑하고 近朱者赤이라. (近:가까울 근, 墨:먹 묵, 黑:검을 흑, 朱:붉을 주, 赤:붉을 적)  
먹을 가까이하는 자는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하는 자는 붉어진다.
- ◆ 騎馬면 欲率奴라. (騎:말탈 기, 欲:하고자할 욕, 率:거느릴 솔, 奴:종 노)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어한다.
- ◆ 己所不欲이면 勿施於人이라. (己:자기 기, 所:바 소, 勿:말 물, 施:베풀 시)  
자기가 하고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시키지) 말라.
- ◆ 寧爲鷄口언정 無爲牛後라. (寧:차라리 녕, 鷄:닭 계, 牛:소 우, 後:뒤 후)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



## 제 7 강 단문(短文) - 고전 속의 명단문(2)

寧測十丈水深이요 難測一丈人心이라.

談虎虎至하고 談人人至니라.

來言不美어늘 去言何美리오.

滿招損하고 謙受益이라.

無道人之短하고 無說己之長하라.

不能舍己從人은 學者之大病이라 天下之義理가 無窮하니 豈可是己而非人이리오.

突不燃이면 煙不生이라.

三歲之習이 至于八十이라.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라. 擇其善者而從之하고 其不善者而改之니라.

水深은 可知나 人心은 難知라.

## 풀이와 해석

- ◆ 寧測十丈水深이요 難測一丈人心이라. (寧: 차라리 녕, 測: 잴 측, 丈: 길 장, 深: 깊을 심)  
차라리 열 길 물속을 잴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기 어렵다. ※ 丈: 길이 단위 = 어른 키 정도의 길이
- ◆ 談虎虎至하고 談人人至니라. (談: 말삼 담, 虎: 범 호, 至: 이를지)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 호랑이가 이르고 사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이른다.
- ◆ 來言不美어늘 去言何美리오. (來: 올 래, 去: 갈 거, 何: 어찌 하)  
오는 말이 곱지 않거늘 가는 말이 어찌 고우리오.
- ◆ 滿招損하고 謙受益이라. (滿: 가득찰 만, 招: 부를 초, 損: 덜 손, 謙: 겸손할 겸, 受: 받을 수, 益: 더할 익)  
교만함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받게 된다.
- ◆ 無道人之短하고 無說己之長하라. (無: 말 무, 道: 말할 도, 短: 짧을 단, 說: 말할 설, 長: 길 장)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 ◆ 不能舍己從人은 學者之大病이라 天下之義理가 無窮하니 豈可是己而非人이리오  
(舍: 버릴 사, 從: 따를 중, 病: 병 병, 義: 옳을 의, 理: 이치 리, 窮: 다할 궁, 豈: 어찌 기, 是: 옳을 시, 非: 아닐 비)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큰 병이다. 천하의 올바른 이치가 끝이 없으니 어찌  
자기만 올바르고 남은 잘못됐다고 하는가? ※ 舍: 버릴 사 =捨
- ◆ 突不燃이면 煙不生이라. (突: 부딪힐 돌, 燃: 불탈 연, 煙: 연기 연)  
굴뚝은 불을 태우지 않으면 연기가 생겨나지 않는다.
- ◆ 三歲之習이 至于八十이라. (歲: 해 세, 習: 익힐 습, 于: 어조사 우)  
세 살의 습관이 팔십에 이른다.
- ◆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라. 擇其善者而從之 하고 其不善者而改之니라.  
(師: 스승 사, 焉: 어조사 언, 擇: 택할 택, 從: 따를 중, 改: 고칠 개)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좋은 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따르고  
그 좋지 않은 것을 택하여서는 그것을 고쳐라.
- ◆ 水深은 可知나 人心은 難知라. (深: 깊을 심, 可: 가할 가, 難: 어려울 난)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

## 제 8 강 단문(短文) - 고전 속의 명단문(3)

樹欲靜而風不止하고 子欲養而親不待라.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고 聽而不聞하고 食而不知其味니라.

我腹旣飽면 不察奴飢라.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良藥은 苦於口나 而利於病이요 忠言은 逆於耳나 而利於行이니라.

遠水不救近火요 遠親不如近鄰이라.

溫故而知新이면 可以爲師矣니라.

爲學不暇者는 雖暇라도 亦不能學矣니라.

幼而不學이면 老無所知하고 春若不耕이면 秋無所望이라.

衣以新爲好요 人以舊爲好라.

## 풀이와 해석

- ◆ 樹欲靜而風不止하고 子欲養而親不待라.

(樹: 나무 수, 欲: 하고자할 욕, 靜: 고요할 정, 止: 그칠 지, 養: 봉양할 양, 親: 부모 친 待: 기다릴 대)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하나 아버지는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 ◆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고 聽而不聞하고 食而不知其味니라.

(焉: 어조사 언, 視: 볼 시, 聽: 들을 청, 味: 맛 미) ※ 焉 = 於此 (이에) 不 + ㄷ, ㅈ = 부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 ◆ 我腹旣飽면 不察奴飢라.

(我: 나 아, 腹: 배 복, 旣: 이미 기, 飽: 배부를 포, 察: 살필 찰, 奴: 종 노, 飢: 굶주릴 기)

내 배가 이미 배부르면 종의 굶주림을 살피지 않는다.

- ◆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愛: 사랑할 애, 恒: 항상 항, 敬: 공경할 경)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 ◆ 良藥은 苦於口나 而利於病이요 忠言은 逆於耳나 而利於行이니라.  
(良: 좋을 랑, 藥: 약 약, 苦: 쓸 고, 利: 이로울 리, 病: 병 병, 逆: 거스를 역)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런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
- ◆ 遠水不救近火요 遠親不如近鄰이라. (遠: 멀 원, 救: 구원할 구, 親: 친척 친, 近: 가까울 근, 鄰: 이웃 린)  
멀리 있는 물은 가까이 있는 불을 끌 수 없고,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같지 않다.
- ◆ 溫故而知新이면 可以爲師矣니라. (溫: 익힐 온, 故: 옛 고, 師: 스승 사, 矣: 어조사 의)  
옛 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 ◆ 謂學不暇者는 雖暇라로 亦不能學矣니라. (暇: 겨를 가, 雖: 비록 수, 亦: 또 역)  
배우는데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비록 겨를이 있다하더라도 또한 배울 수가 없다.
- ◆ 幼而不學이면 老無所知하고 春若不耕이면 秋無所望이라.  
(幼: 어릴 유, 所: 바 소, 若: 만약 약, 耕: 밭갈 경, 望: 바랄 망)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만약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바가 없다.
- ◆ 衣以新爲好요 人以舊爲好라. (新: 새 신, 舊: 옛 구)  
옷은 새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사람은 오래된 사람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 제 9 강 단문(短文) - 고전 속의 명단문(4)

二人同心은 其利斷金이요 同心之言은 其臭如蘭이라.

人一能之면 己百之하고 人十能之면 己千之하라.

一年之計는 莫如樹穀이요 十年之計는 莫如樹木이요 終身之計는 莫如樹人이라.

積善之家는 必有餘慶이요 積不善之家는 必有餘殃이니라.

鳥久止면 必帶矢라.

仁者樂山이요 知者樂水라.

知之者 不如好之者요 好之者 不如樂之者라.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니라.

靑은 取之於藍而靑於藍하고 氷은 水爲之而寒於水라.

泰山은 不讓土壤이라 故로 能成其大하고 河海는 不擇細流라 故로 能就其深이라.

## 풀이와 해석

- ◆ 二人同心은 其利斷金이요 同心之言은 其臭如蘭이라.

(同: 같을 동, 其: 그 기, 斷: 자를 단, 臭: 냄새 취, 蘭: 난초 란)

두 사람의 한 마음은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르고 한마음의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 ◆ 人一能之면 己百之하고 人十能之면 己千之하라. (百: 일백 백, 千: 일천 천)

남이 한 번에 그것을 능히 하면 자신은 그것을 백번하고

남이 열 번에 그것을 능히 하면 자신은 그것을 천 번하라.

- ◆ 一年之計는 莫如樹穀이요 十年之計는 莫如樹木이요 終身之計는 莫如樹人이라.

(計: 계획할 계, 莫: 없을 막, 如: 같을 여, 樹: 심을 수, 穀: 곡식 곡, 終: 마칠 종)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 ◆ 積善之家는 必有餘慶이요 積不善之家는 必有餘殃이니라. (積: 쌓을 적, 餘: 남을 여, 慶: 경사 경, 殃: 재앙 양)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 ◆ 鳥久止면 必帶矢라. (久:오랫 구, 止:그칠 지, 帶:맞을 대)

새가 오래 멈춰 있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 ◆ 仁者樂山이요 知者樂水라. (樂:좋아할 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 ◆ 知之者 不如好之者요 好之者 不如樂之者라. (樂:즐거울 락)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 ◆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니라. (彼:저 피, 戰:싸울 전, 殆:위태로울 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 ◆ 靑은 取之於藍而靑於藍하고 氷은 水爲之而寒於水라.

(靑:푸를 청, 取:취할 취, 藍:쪽풀 람, 氷:얼음 빙, 寒:쌀 한) ※ 於 = ~에서(처소) / ~보다(비교)

푸른색은 쪽풀에서 그것을 취하나 쪽풀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이 그것이 되지만 물보다 차갑다.

- ◆ 泰山은 不讓土壤이라 故로 能成其大하고 河海는 不擇細流라 故로 能就其深이라.

(泰:클 태, 讓:사양할 양, 壤:흙 양, 擇:가릴 택, 細:가늘 세, 流:흐를 류, 就:이를 취 深:깊을 심)

태산은 토양(한줌의 흙)을 사양하지 않는 까닭에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강과 바다는 작은 흐름도 가리지 않는 까닭에 그 깊음으로 나갈 수 있다.



## 제 10 강 우언(寓言)과 일화(逸話)

## [ 1 ] 借鷄騎還(차계기환)

金先生은 善談笑라. 嘗訪友人家하니 主人이 設酌에 只佐蔬菜하고 先謝曰,  
"家貧市遠하여 絶無兼味요, 惟淡泊하니 是愧耳라." 適有群鷄하여 亂啄庭除어늘  
金曰, "大丈夫는 不惜千金이니 當斬吾馬하여 佐酒하리라." 主人曰, "斬馬면  
騎何物而還고?" 金曰, "借鷄騎還하리라." 하니 主人이 大笑하고 殺鷄餉之러라.

## 풀이와 해석

- ◆ 金先生 善談笑(김선생 선담소) 善 '잘하다'
- ◆ 嘗訪友人家(상방우인가) 嘗 '일찍이'는 '예전에'의 의미 ※ 嘗: 맛볼 상(臥薪嘗膽-와신상담-)
- ◆ 設酌(설작) 設 '차리다, 마련하다' 設酌 술상을 차리다, 술자리를 마련하다
- ◆ 只佐蔬菜(지좌소채) 佐는 돕다, 佐酒 술을 돕다 = '안주로 삼다'
- ◆ 絶無兼味(절무겸미) 絶 부사로 '전혀', 絶無 전혀 없다. 兼味 맛을 겸할 것, 맛있는 것
- ◆ 惟淡泊 是愧耳(유담박 시괴이) 淡泊 담백하다 耳 ~일 따름이다. ~일 뿐이다(한정) = 而已, 而已矣
- ◆ 適有群鷄(적유군계) 適 때마침
- ◆ 佐酒(좌주) 술을 돕다 = 술안주로 하다.
- ◆ 殺鷄餉之(살계향지) 餉 대접하다. 之 그것(대명사)=닭

김선생은 우스운 이야기를 잘하였다. 일찍이 친구 집을 방문하여 주인이 술자리를 마련함에 단지 나물로 안주로 하고 먼저 사죄하며 말하길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맛을 겸한 훌륭한 것이 없고 오직 담박하니 이것이 부끄러울 뿐이네. 여러 마리 닭이 마당에서 이리저리 모이를 쪼고 있으니 김 선생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으니 마땅히 나의 말을 베어 술안주를 하리라" 주인이 말하기를 "말을 베면 어떤 물건을 타고 돌아갈 것인가? 김 선생이 이르기를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리라" 하니 주인이 크게 웃고 닭을 잡아 그를 대접하였다.

## 본문 속의 한자

笑 웃을 소 嘗 일찍이 상 訪 찾을 방 設 베풀 설 酌 술따를 작 只 다만 지 佐 도울 좌  
蔬 채소 소 菜 나물 채 謝 사례할 사 絶 끊을 절 兼 겸할 겸 惟 오직 유 淡 맑을 담  
泊 엷을 박 是 이 시, 옳을 시 愧 부끄러울 괴 適 마침 적, 마땅 적 群 무리 군 鷄 닭 계  
亂 어지러울 란 啄 쪼을 탁 庭 뜰 정 除 뜰 제 惜 아낄 석 斬 벨 참 騎 말탈 기 還 돌아올 환  
借 빌릴 차 殺 죽일 살 餉 대접할 향

## [ 2 ] 不言長短(불언장단)

昔에 黃相國喜가 微時에 行役할새 憩于路上이라가 見田父駕二牛耕者하고  
問曰“二牛, 何者爲勝고?” 하니 田父不對하고 輟耕而至하여 附耳細語曰  
“此牛勝이라.” 公이 怪之曰“何以附耳相語오?” 하니 田父曰: “雖畜物이나  
其心은 與人同也라. 此勝則彼劣이니 使牛聞之면 寧無不平之心乎아?” 公이  
大悟하여 遂不復言人長短云이러라.

## 풀이와 해석

- ◆ 昔(석) 옛날에,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 ◆ 黃相國喜(황상국희) 黃(황씨 姓을 가진) 相國[재상] 喜(희)가
- ◆ 微時(미시) 벼슬하지 않을 때
- ◆ 憩于路上(계우노상) 上 ~가의 의미, 路上은 길가, 于 어조사 우(~에서=於로 대체 가능)
- ◆ 何以附耳相語(하이부이상어) 何以 어째서, 어떤 까닭으로, 相은 의미일 뿐 특별히 해석하지 않는다.
- ◆ 使牛聞之(사우문지) 使 사동형을 만들어주는 조동사 (使, 令, 敎, 遣, 卑, 命 등), 之(대명사)
- ◆ 寧無不平之心乎(녕무불평지심호) 寧 어찌, 반어형을 만들어 주는 조동사(安, 寧, 焉, 胡, 豈, 何, 奚 등)
- ◆ 遂不復言人長短云(수불부언인장단운) 遂 드디어, 마침내 復 다시 부 云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옛날 황희 정승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 길을 가던 중에 길가에서 쉬다가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부려 바를 가는 것을 보고는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라고 말하니,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 발갈기를 멈추고 와서 귀에 대고 가는 목소리로 “이 소가 낫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공(황희 정승)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하는가?”라고 말하니, 농부가 “비록 가축이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저것이 못한 것이니,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공(황희 정승)이 크게 깨달아 마침내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 본문 속의 한자

昔 옛 석 微 작을 미 役 부릴 역 憩 쉴 게 駕 부릴 가 耕 밭갈 경 勝 이길 승, 나을 승 對 대할 대  
輟 그칠 철 耕 밭갈 경 附 붙일 부 細 가늘 세 怪 기이할 괴 雖 비록 수 畜 기를 축 與 더불어  
彼 저 피 劣 못날 열 使 하여금 사 寧 차라리 녕, 어찌 녕 憚 안할 념 悟 깨달을 오 遂 드디어 수  
復 다시 부 云 이를 운